



心實愛世
攝信慈度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1976. 10. 15. 등록번호 라-2143호·월간·비매물

東友會報

1989年(檀紀 4322年) 2月28日 第139號 (1)

발행인 鄭在哲
편집인 申益錫
인쇄인 張明錫

東國大學校 總同窓會
서울특별시 중로구 관후동 192-18
성화빌딩 12층
전화: 733-3993(代)
733-3991, 3992, 3993

우편대체 012328-31-0525669
은행지호번호 7500891

새가족 3,831명 東岳의 품에



◇ 觀海廣場에서 열린 입학식 광경



우리 母校 東國大學校에서는
심정이가 印塘水에 빠져 들어가 살던
그 언뜻 내음새가 나고
목을 베니

것이 나 솟았다니
聖異次頓의 講義소리가 들리고

慶州 石窟庵에 彫刻된 것과 같은
永遠을 사는 사람의 모양들이

講堂마다 學生들 틈에 그윽히 끼어 同行한다.
세계의 나지막 나라 大韓民國의

펜 마지막 靜寂과 義務속에 자리하여
가장 밝은 눈물 뜨고 있는 母校여

三世 가운데서도 가장 쓰고 짜거운 한복판.
永遠속에 가장 후미진 書齋

最後로 생각할 것을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最後로 責任질 것을 책임져서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母校여

우리 故鄉중의 故鄉이여.
進甲의 水墨빛 僧衣를 입으신

이 크신 아버지님 앞에
내 오늘 돌아온 瀟灑처럼 甕門으로 스며들면

이不老의 님은 주름살 대신에
그 이마사이 한결 더 밝아지신 白髮의 빛에 쏘인
甘露의 靈藥사발을 우리에게 권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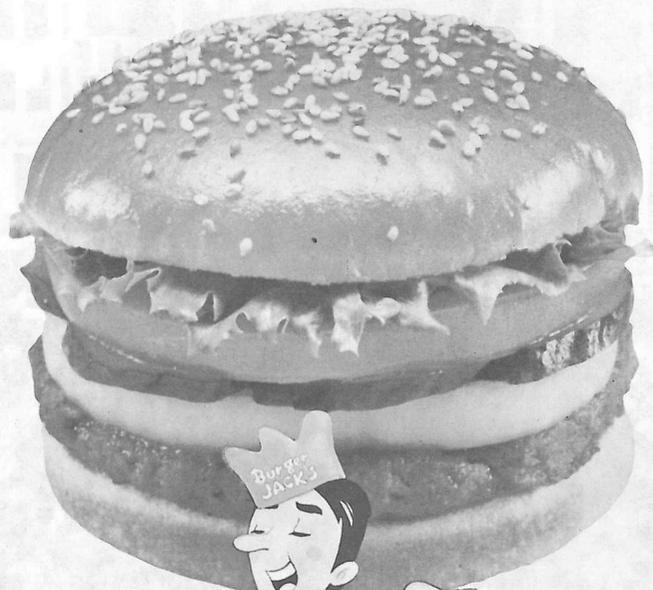
讚揚할거이다.
讚揚하고 또 말을 지어다.

님께서 이룩하신 眞理의 목은 발을
그런 이랑 한 이랑씩을
말아선 들없이 꽃피며 감지르다.

— 徐廷柱(음문)의 「우리 故鄉중의 故鄉이여」

東友會報

'88서울올림픽과 버거잭햄버거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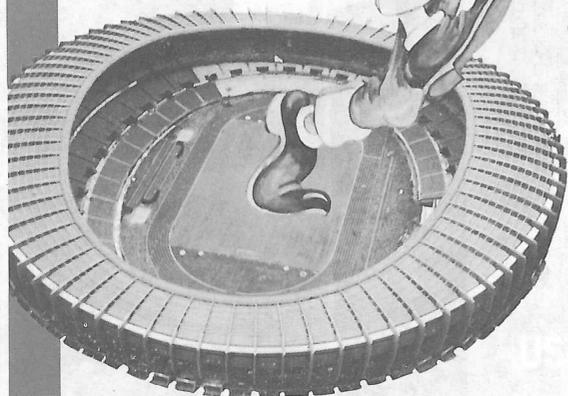


햄버거 전문업체 버거잭이
'88서울올림픽 전경기장 매장영업업체 및
대회운영요원 급식공급업체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품질우선, 위생우선,
서비스 우선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버거잭은 대회기간('88. 9. 17~10. 2) 중 올림픽 컴플렉스,
올림픽파크 및 축구예전이 있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부산수영관
요트경기장 등 전 경기장 내 64개 매장에서 양식부문 영업업체로서
여러분과 만나게 됩니다.
아울러 대회 운영 요원의 영양가 높은 급식을 위해 햄버거 및
양식세트도 공급합니다.

■ 가맹점 모집안내
신청접수중: 직접내사 상담팀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86-7
버거잭 프라자 (본사)
● 대표전화: 545-8201

Burger JACK'S.
(주) 버거잭 코리아



1988학년도 學位授與式 새동문 3,717명 배출

博士 16명·碩士 222명...수석졸업 하석모군

本會, 졸업생에 기념품 증정

모교 1988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서울빛 경주캠퍼스에서 지난 25일과 27일에 각각 열려 새로운 同門 3,717명을 배출했다.

모교 李智冠총장, 黃軫經재단 이사장, 본회 鄭在哲총동창회장과 安滌蘭 柳潤馨부회장등 교수·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3,479명을 비롯해 석사 222명, 박사 16명 등에게 학위가 수여됐다. <박사학위취득자 프로필 9면>

상기께, 학사보고, 학위수여 총장식사, 이사장고사, 동창회장 추사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모교 李智冠총장은 졸업식사를 통해 『독선과 편견이 없는 역사행위의 선구자가 되어 우리시대의 새로운희망으로 결속시켜줄것』과 『졸업생 여러분의 앞길에 어려운파도가 다가오더라도 정의의 편

에서서 슬기롭게 극복해나가 줄것』을 당부했다.

이어 黃軫經이사장은 고사에서 『여러분의 학창시절이 대내외로 어려웠던 시기였다』고 말하고 『사회로 진출하는 여러분에게 가는 동국의 기에에 부응하여 가일층 분발해줄것』과 『모교는 재단과 교직원, 학생은 물론 모든 동문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 발전하는 동국을 이룩해나갈』 뜻을 밝혔다.

이어 鄭在哲회장은 축하사를 통해 『새로운 각으로 사회로 진출하는 후배여러분을 기쁜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말하고 『사회 각부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들과 손을잡고, 동국인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보국의 명을 드높여달라』고 당부하고 졸업생들의 장도를 격려했다.

한편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영예의 전체수석에는 평점 4.42



(4.5단점)의 하석모(법정대법학과)군이, 서울캠퍼스 수석에는 평점4.85의 정영수(공과대 영문과)양이, 차석에는 김수경(인문대 영어과)양과 김경희(인문대 일본과)양이 각각 차지했다.

본회에서는 이번 졸업생 전원에게 졸업장케이스를 기념품으로 증정하고 졸업을 축하했다.

회장 新年인사문 발송 적극적인 참여 당부해

본회 鄭在哲회장은 지난1일 전체 동문들에게 신년인사문을 겸한 서한을 보내고 금년도에도 건동문이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총동창회를 만들어갈것을 부탁했다.

이 서한에서 鄭회장은 『그간 동문여러분의 성원속에 회관기금 2억4천만원을 비롯해 중우장학금과 1억1천만원의 장학금들이 조성됐다』고 밝히고 모교 100주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총동창회의 여러사업들이 자립없이 시행될수 있도록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회비납부등을 요청했다.

ROTC 4기會

3월24일 창립총회

ROTC 4기會를 조직중인 결성준비위원회(위원장=成百華·66생년)는 그간 소적준비를 마치고 오는 3월24일 창립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모교 補職教授 인사이동 경영대학원장 尹鍾安교수

모교당국은 지난28일자 모 학자실정에내한 인사이동을 실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경영대학원장에 尹鍾安(외계학과) ▲불교대학장에 趙楨植(불교학과) ▲기획조정실장에 金繁雄(행정학과) ▲교무처장에 金正根(영문학과) ▲비서실장에 李相賢(경찰행정학과)교수를 각각 임명 발표했다.

한편 공석중인 사회과학대학에는 兪光震(정의과) 교수가 지난날 4일자로 보직 임명된 바있다.



회원상하급 신년인사문 나누고 장학기금 전달등의 행사를 기쁘다.

이날 월례회에서는 또 신입 회원으로 南相根(49사하) 크로바 회장 趙榮成(52경제·안국화재대일대리점 대표) 任英信(57경제·성대실업) 대표 이사 金在鎭(63경제·한국도로공사 경리부장) 김진규(72상업·세틸실업 대표) 동문등을 영입했다.

한편 何를림은 그간 직립해온 기금으로 불우한 천령장애자 1명을 선정해 서울대병원 시 포수시술을 받도록 했다.

통계과동창회 이사회 수익사업용 보험대리점 개설

통계학과 동창회(회장=李光根·영한시드림대표)이사회가 지난18일 오후 4시 서대문은성회관에서 회원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회보활성화를 통한 동문간의 친목도로와 후배대학생들에 대한 자발금확충방안을 논의하고 同會의 발전을 다짐했다.

한편 통계과동창회는 최근 수익사업을 위해 안국화재보험필동대리점(776-9694)을 개설했는데 많은 동문들의 협조를 기다리고 있다.

임리 모교 졸업생 및 입학식 관계로 본회 임원이 늦어진 점을 양해 바랍니다.

경북 대구支部 신입생에 장학금 전달해 충남 대전支部 89년입학생 환영회 개최

각각부에서 모교에 입학하는 신입생후배들에 대한 격려가 있다고였다.

경북·대구支部에서는 경주캠퍼스 입학식때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충남·대전지부는 지역출신 신입생의 환영회를 개최했다.

<경북·대구支部>

경북大邱支部(회장=朴連植·대광화선(주)대표이사)는 3월 3일 경주캠퍼스 입학식에서 매년 후일해보고 있는 신입생 장학금 60만원씩을 전달했다.

한편 同會는 지난 연말 동국인의원에서 새입원생을 선출해 부회장에 하우한 박진조 신임남 이종기 이규현동문을, 감사에 최윤호 홍기익동문, 총무에 김산준동문, 부총무에 우성수동문을 각각 선임했다.

아울러 전임회장이 하영태동문을 비롯해 박진희 강기원 남광조 전태선 김종일 이영택 안종열동문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나후용동문등 39명을 이사로서 임명했다.

同會는 최근 경북대구지부동창회 사무실을 대구시 남구대



충남대전支部에서 신입생에게 기념품을 전달하는 장면

명동809-3 고려빌딩626호(전화: 626-1110)로 이전했으며 물품에는 전체 회원이 참가하는 등산대회표 열 명 예정으로였다.

<충남·대전支部>

충남大田支部(회장=金鍾雄·유성고교 교장)는 지난16일중앙관광호텔, 6층회의실에서 정기월례회를 겸한 89년입학환영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모교에 입학한 대전출신 신입생 9명을 비롯 동문56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는데, 학과수석으로 입학한 여진우(경찰행정과)군등 11명

의 새동국가족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한편 同會는 전임회장 이재복 월계주 권오욱 임진준 박중문동문등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황영수 김홍만 이규구 박태건동문의원과 이봉학 대전직업합시장을 고문으로 추대기로 결의했다.

東國山岳會 정기총회 열려 신임회장에 李重雄동문 선출



東國山岳會(회장=鄭鍾永)는 지난24일 모교 산악회 실에서 89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李重雄(64인문·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구조개선연구실장·사진) 동문을 선출하는 등 임원진을 개편했다.

국내외 산악에서 큰 활약을 펼치는 同會를 이끌어갈 신임 회회장은 모교 입학과를 졸업후 1978년 일본 大阪府立대에서 능하박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이날 임원선출에서는 부회장에 김문환 이인정 김환익 이영근동문을, 감사에 홍찬익 동문, 총무이사에 유대현동문등을 각각 선임했다.

한편 同會는 금년 봄에 대한산악연맹(회장=李仁植)이 추진중인 중구투어를 통한 이베스트 동정을 준비중에 있다.

東國라이온스클럽

지난10일 신년월례회

東國라이온스클럽(회장=鄭在哲) 신년월례회가 지난10일 영버서더호텔 도라지룸에서 열려

신입동문에 '신상카드' 배부

東友會報우송과 동국인명록 등재자료로

본회는 모교의 협조를얻어 89년 2월 졸업생 3천7백17명에 대한『동문신상카드』를 배부해 현주소 및 직장연락처등을 파악했다.

이번 졸업한 신입동문들에 대한『동문신상카드』파악은 『동우회보』우송과 『東國人名錄』등재를 위한 자료로 이용되며 졸업후

본회와 긴밀한 연락관계를 유지하여 모교와 동문간의 유대감화에 기여하게된다.

각학과별모과파악한『동문신상카드』를 미처 제출지 못한 동문들은 개인별로 연락을주어 이번 89년 졸업생 현황파악에 적극 협조해주시 바란다.

우리는 더높이 날아야 한다



초속 70km이상을 날지 못하는 뱀성은 별풍이 되어 지상으로 추락한다고 한다.

또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비행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날 수 있는 한계를 넘지 못하면 비행기는 빙글빙글 돌며 자유낙하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들은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나 또 일정한 공동체에게도 적용되는 이치가 아닌가 싶다. 비록 과학적인 수치 따져 규정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개인이 집단에 있어서도 발전과 퇴보에 한계점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난다」와 「발견」이 「발전」과 「퇴보」라는 의미 맥락에서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낄 수가 있다.

지난 수년간이 걸쳐 「동국」이란 이름속에서 모교와 총동창회는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진통을 겪어왔던 몇몇 일화도 동국가족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

특히 우리 총동창회는 지난 수년간 여러 어려움속에서도 나름대로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온 바 있다. 의외적으로도 모교내에 조그만 사무실로 운영되던 총동창회 사무국이 독립된 사무실을 마련해 이전했고, 각지에 흩어져있는 동문들을 규합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는 「동우회보」의 발행부수 또한 배이상의 증부를 해오고 있다.

또 여러 동문들의 정성어린 성원속에 2억이 넘는 회관건립기금을

적립중에 있고, 동우장학기금을 비롯 1억여원의 장학금이 모아진 것들은 빼놓을 수 없는 총동창회의 발전된 면모라 하겠다. 내철적인 측면에서 보면 「동국문화상」 제도의 시행이라든지 각급지부와 지회이 활성화, 후배졸업생들의 취업을 돕는 「취업안내실」의 운영등 동문사회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이 전개되어오기도 했다.

하지만 총동창회의 발전적 위상 마련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은게 현실이다. 보다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는 부분을 비롯하여 모교발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후원등에 대해서는 8만동문 모두에게 주어진 무거운 과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더우기 독립된 동창회관을 마련하여 자립적 운영의 기틀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도 여러차례 기른번비었다.

그렇지만 앞서 말한바와 같이 총동창회의 발전에는 일정한 이상의 추진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즉 동문사회의 발전과 모교발전에는 일차적으로 보다 많은 동문들의 참여의식이 필요한 것이며, 이차적으로는 각종사업과 총동창회 운영의 기초가 되는 재원 조달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동문들의 후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난 88년도 회계결산을 통해 불배 동문들이 협조해주고 있는 년회비 납입실적이 「동우회보」 우송량의 1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현재 총동창회 발전을 위한 추진력은 여부족임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뜨거운 모교애로 성원하여 주는 동문들과 임원진들의 노력속에 총동창회가 발전의 디딤돌을 하나하나 놓아가고 있는 것이다. 금년도에는 우리 동창회가 보다 높이 날 수 있도록 많은 동문들의 성원을 기대한다.

各支部 체육부 격려美談

本會 각지역별 동창회는 지난 1~2월중 실시된 모교 체육부의 동계전지훈련에서 합숙 훈련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합숙 훈련장의 성원과 격려를 보내 선우배전의 훈련의 미담을 전해 주고 있어 동문사회에 화제가 되고있다.

선남 광주지부·전북 전주지부·경남 마산지부·충주시지회 등 4개동창회 임원 동문들이 체육부 후배들을 찾아가 격려

다. 同會의 鄭희장을 비롯, 구창권(마산공동락주제초창대표) 부회장, 양재현(경남대학교)이사, 공준식(롯데크리스탈호텔 관측과장)총무, 한판안(경남대 전자계산소장)부총무등 임원진은 모교 선수들에게 후집한 저녁의 식사를 베풀어 금년에도 좋은 성적으로 모교의 명예를 빛내주기 바란다는 격려의 자리를 마련했다.



한 내용을 소개한다.

光州支部 야구부 격려

전남光州支部(회장=崔聖鎭·광주교육대학장)는 지난 4일 유성서(신일시립대)총무와 성정환(대성여중교감)총무등 임원진이 모교 야구부 합숙훈련장을 방문해 과일과 음료수등을 전달하고 김중우 감독및 38명의 후배선수들을 격려했다.

복성·레슬링부 회식

전북全州支部(회장=金三龍·원광대총장)는 지난 5일 유성중(전일시립대상사대표) 부회장과 정용하(전대공사 입실지점장)총무등의 주선으로 모교 복성부와 레슬링부 감독및 선수단 28명을 초청해 저녁회식을 베풀고 후배선수들의 사기부족을 닦았다.

지난 서울올림픽을 통해 혁혁한 성적을 올린바 있는 모교 복성부와 레슬링부는 설날을 앞두고 동계훈련에 임하고 있었는데 지역 선배들의 격려 덕분에 더욱 좋은 성적을 올릴것이다.

이번 회식에는 복성부의 김진영감독과 레슬링부의 배기열감독이 함께 참석해 지역동문들의 성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마산지부 농구부 격려

지난해 12월 경남지부를 창립한 경남마산지부(회장=鄭珉鎔·(주)영남공업사대표)이사는 동계훈련차 마산을 방문한 모교 중구부 수련군 감독을 비롯한 14명의 선수단을 격려했

후배 사기부족 돌아 善戰 당부



한편 경남지부 공준식총무는 농구부원의 숙소를 롯데크리스탈호텔에 저렴한 비용으로 제

내 이번 훈련중 격려를 보내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本會來訪

- ▲김광국 (89부여·대한국교육부) 서귀환 (서울캠퍼스 졸업준비위원장) ▲김진수(경주캠퍼스)
- ▲진창훈 (70상하·근성공예대표) ▲김경수 (85산공·주)마이크로코리아) ▲시태일 (86경제·제일물산공업(주)) ▲이경훈 (48해전) ▲장재태 (현원·행정대학원동창회 사무차장) ▲김광준 (78생서·우전주택건설대표) ▲오승대 (63경제·내외스포츠) ▲신승길 (63경제·성하상사(주))

- 이) ▲서성대 (63생물·산학전업사 대표) ▲김재국 (61경제·강남교과병원 이) ▲김기용 (62정치·국책연구소 행정연구위원) ▲안채현 (54국문·영성중교교이사장) ▲배정기 (64경영·삼일심수 代表) ▲정희성 (83국문·한국방송위원회) ▲김윤중 (75정치·신성금고제작소 상무) ▲조준환 (74경영·세우정기통신공사 사장) ▲김정환 (85산공·현대자동차(주)) ▲김희영 (60정치·한국해상사로 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오동익 (61경제·서일물산 대표) ▲이동원 (89경영·금용증권인보기자)

체신부 通信工事면허업체

世宇電子通信公社

TEL: 273-4048 (代)

- 각종 通信設備 유지 보수
- 각종 通信機器 제작 및 설치
- 전자식 자동교환기 및 키-폰
- FAX·TELEX, 인타폰, MDF 설치
- 컴퓨터 및 SOFTWARE 용역

대표 趙椿煥 (74경영)

충주 을지로 4가 315-1 무광BD 510호

桃園꽃집

화환·꽃바구니
생화·신부화
화분·동·서양란

TEL: 266-4571
야간: 602-4806

대표 辛承水 (72경영)

서울·충주 중부로 4가125-1
진양빌딩 3층 42호

회비... 1년에 1만원

회비내역

- 一般會費... 1만원
- 理事會費... 5만원
- 常務理事... 20만원
- 단체회비... 회원수대로
- 해외동문회비... \$ 20
- 監事... 20만원
- 副會長... 50만원
- 會長... 100만원

◆남부안내

- ①은행저리이용 납부
- ②전화주식펀드 방문납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회사 무국(733-3991~3)으로 문의 바랍니다

東國大學校 總同窓會 事務局

本報는 급년도 하위수익을 계기로 새로이 탄생한 3천7백여명들을 비롯한 8만중국인의 연대감조성 및 뿌리찾기의 일환으로 각동문들의 요청에의거 각과별 졸업회수를 정리 게재한다. (年度는 졸업년도)

◇서울 캠퍼스◇

- <불교대학>
- ▲불교학과 1950년 1회, 1989년 40회
 - ▲인도철학과 1968년 1회, 1989년 22회
 - ▲선학과 (불승가학과) 1976년 1회, 1989년 14회
- <문과대학>
- ▲국어국문학과 1950년 1회, 1989년 40회
 - ▲영어영문학과 1950년 1회, 1989년 40회
 - ▲독어독문학과 1985년 1회, 1989년 5회
 - ▲일어일문학과 1985년 1회, 1989년 5회
 - ▲사학과 1950년 1회, 1989년 40회
 - ▲철학과 1957년 1회, 1989년 33회
 - ▲국민윤리학과 1985년 1회, 1989년 5회
- <이과대학>
- ▲수학과 1958년 1회, 1989년 32회
 - ▲물리학과 1958년 1회, 1989년 32회
 - ▲화학학과 1958년 1회, 1989년 32회
 - ▲통계학과 1967년 1회, 1989년 23회
- <법과대학>
- ▲법학과 1953년 1회, 1989년 37회

뿌리를 찾자... 나는 몇회

佛敎·國文·英文·史學科 40회로 最古

- <경상대학>
- ▲경제학과 1951년 1회, 1989년 39회
 - ▲경제학과(야) 1983년 1회, 1989년 7회
 - ▲무역학과 1973년 1회, 1989년 17회
 - ▲무역학과(야) 1983년 1회, 1989년 7회
 - ▲경영학과 1963년 1회, 1989년 27회
 - ▲경영학과(야) 1983년 1회, 1989년 7회
 - ▲회계학과 1981년 1회, 1989년 9회
 - ▲회계학과(야) 1981년 1회, 1989년 9회
 - ▲정보관리학과 1989년 1회, 1989년 1회
 - ▲상학과 (폐지) 1963년 1회, 1972년 10회
- <농과대학>
- ▲농학과 1957년 1회, 1989년 33회



▲국어국문학과 제 1회 졸업생들(1950년)

정보관리, 경주전산등 4개과 첫졸업생 배출 정의·경제·법학등 14개과 30회넘어 경주 最古는 국문 영문등 9개과 7회

- ▲전자공학과 1989년 25회, (舊공업경영) 1989년 13회
- ▲전자계산학과 1971년 1회, ▲산업공학과(야) 1980년 1회, 1989년 19회, 1983년 4회
- ▲전자계산학과(야) 1976년 1회, 1989년 14회
- ▲전기공학과 1974년 1회, 1989년 10회
- ▲토목공학과 1974년 1회, 1989년 16회
- ▲건축공학과 1971년 1회, 1989년 19회
- ▲화학공학과 1971년 1회, (舊연료, 고분자) 1989년 19회
- ▲산업공학과 1972년 1회

- <사범대학>
- ▲국어교육과 1973년 1회, 1989년 17회
 - ▲국사교육과 1980년 1회, 1989년 10회
 - ▲사회교육과 1973년 1회, (폐지) 1984년 12회
 - ▲교육학과 1984년 1회, 1989년 6회
 - ▲지리교육과 1985년 1회, 1989년 5회
 - ▲수학교육과 1973년 1회, 1989년 17회

- ▲과학교육과 1973년 1회, (폐지) 1979년 7회
 - ▲가정교육과 1976년 1회, 1989년 14회
 - ▲체육교육과 1974년 1회, 1989년 16회
- <예술대학>
- ▲미술학과 1975년 1회, (舊불교미술) 1989년 15회
 - ▲연극영화학과 1964년 1회, 1989년 26회

◇경주 캠퍼스◇
<인문과학대학>

- ▲국어국문학과 1983년 1회, 1989년 7회
- ▲영어영문학과 1983년 1회, 1989년 7회
- ▲일어일문학과 1983년 1회, 1989년 7회
- ▲중어중문학과 1984년 1회, 1989년 6회
- ▲한문학과 1984년 1회, 1989년 6회
- ▲극사학과 1983년 1회, 1989년 7회
- ▲고고미술사학과 1988년 1회, 1989년 2회
- ▲미술학과 1983년 1회, 1989년 7회

<자연과학대학>

- ▲전자계산학과 1989년 1회, 1984년 1회
- ▲조경학과 1989년 6회, 1985년 1회
- ▲수학교육과 1985년 1회, 1989년 5회
- ▲가정교육과 1985년 1회, 1989년 5회

<법정대학>

- ▲법학과 1985년 1회, 1989년 5회
- ▲법학과(야) 1989년 1회, ▲행정학과 1984년 1회, 1989년 6회

<상경대학>

- ▲경제학과 1983년 1회, 1989년 7회
- ▲무역학과 1983년 1회, 1989년 7회
- ▲경영학과 1983년 1회, 1989년 7회
- ▲경영학과(야) 1989년 1회, 1983년 1회
- ▲회계학과 1988년 1회, 1989년 7회
- ▲관광경영학과 1988년 1회, 1989년 2회

<함의과대학>

- ▲한의학과 1985년 1회, 1989년 5회



▲70년대 초의 캠퍼스전경

- <사회과학대학>
- ▲정치외교학과 1951년 1회, (舊정치학과) 1989년 39회
 - ▲행정학과 1964년 1회, 1989년 26회
 - ▲경찰행정학과 1967년 1회, 1989년 23회
 - ▲사회학과 1985년 1회, (舊사회개발) 1989년 5회
- ▲임학과 1956년 1회, 1989년 34회
- ▲농업생물학과 (舊응생, 생물) 1958년 1회, 1989년 32회
- ▲농업경제학과 1964년 1회, 1989년 26회
- ▲조경학과 (폐지) 1979년 1회, 1981년 3회
- <공과대학>
- ▲식품공학과 1965년 1회

6.25참전 학도지원병 파악

「학도지원병 참전 동지회」서

6·25통란중 군번도없이 조국을 위해 산화한 학도지원병을 출신학교별로 파악중에 있다.

「학도지원병 참전 동지회」가 본회의 의뢰에응하여 본회 회원들에게 학도지원병 출신학교에 기년비 교지 및 출신자와 생존자 연락을 촉진하기 위해 각대학별로 신상을 파악하고 있으나, 學徒義勇軍가운데 전사자의 경우에는 미처 졸업을 못한 경우가 많기때문에 주위 동료들의 제

출신학교 연락사무소

참전동지회 자료요망

보가 절실한 실정에 있다.

이에따라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했던 생존자들이 중심이 돼 당시 학도의용군의 인적사항·분적·출신학교·전부사항·당시 사진등의 자료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당시 학도지원병으로 참전했던 동문여러분의 많은 제보를 바라며, 연락처는 본회 사무국으로해 주시기 바란다.

2만8천여 중소기업의 대변자 黃勝敏 동문

—중소기업협상은 개인의 영예라기보다는 2만8천여 중소기업의 대표로서 책임이 막중한 자리입니다. 중소기업의 의사가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초석이라는 차원에서 지



적분과 위원장, 내부외상등을 역임하는등 그간 중소기업의 실무에 깊이 관여해오면서 느꼈던 점들을 바탕으로 보다 발전시킬것은 발전시키고 과감히 없앨것은 없애야 한다고 강조한다.

후보자 2명을 물리친 黃勝敏의 가장 큰 공약은 企協중앙회가 興受금원부를 갖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정부측과 협의를 거쳐 이 문제를 마무리짓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자립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정부측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黃勝敏은 企協의 자립화, 기능화, 봉사화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제3국의 중소기업전진기지 설치와 국내에 기능공양성소를 세워 기능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인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에 올바른 기업관을 가진 黃勝敏의 활약이 기대되며, 더욱 선 東國人의 立초에 많은성원이 있을 기대한다.



나 운영해오며 나름대로 중소기업이라는한계를 극복, 단탄한 임지를 세운 실력과 기업가로 한국프래스트립공업 협동조합 이사장직도맡고있다.

黃勝敏은 취임후 첫 과제를 임직원의 인화단결과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중장기정책을 세워 추진하는 것으로 잡는다. 또한 최근의 企協의 노사분규문제도 회사를 「배」로 사원을 「식구」로 생각하면서 상대적인 면을 생각해 주며 대화로 풀면 될것이라는 여유있는 모습도보였다.

그는 그간 중소기업 중앙회 국제협력분과위원, 동시에, 국제세·금융분과위원, 동시에

충북중원이 고향인 黃勝敏은 모교 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은 수료했으며, 프래스트립체인(주) 진양을 설립 28년간이

교류위원회장

徐燦珪 前총장
徐燦珪 前총장은 최근 南北교수 학생 교류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학계와 문화계의 원로들로 구성된 '회의위원회'의 중책을 맡은 徐燦珪 총장은 현재 '대한철학 회' 등으로도 활약중이며, '법철학 사회철학 한국학회'장, '단국대학교 재단 이사장'으로도 활약중이다.

古稀기념 論叢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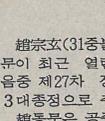
黃壽永 前총장
고교학계의 대우를 꾀하는 前모교동창 黃壽永 박사의 古稀기념「美術史學論叢」이 간행되었다.



이 책에는 일부학계의 석학인 관련논문 10편을 제 1권 鄭明錫(69서사·모교미대교수) 등문의 「石佛寺에 관한 몇 가지 管見」을 비롯한 후학들의 논문 41편과 「黃壽永 박사의 약력, 25년의 논저목록 및 학보사가 수집한 기와百選 畫보가 책머리와 말미에 수록되어 있다.

觀音宗 宗正 추대

趙宗女 宗正
趙宗女(31총봉·시조시인) 등류이 최근 열린 재단법인 관음종 제27차 정기총회에서 제3대 총정으로 추대되었다.



제21회 詩協賞 수상

金長好 宗正
宗正 시인 金長好(48 문화·모교국어교 육과교수·필명 幸湖) 등문은 지난 19일 한국 시인협회에서 주는 제21회 詩協賞 수상자로 결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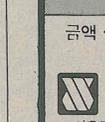
한편 수상작이 된 시집「동경가마귀」는 金長好가 일본 東京文化연구소에서 펴낸 84년에 쓰여진 20여편의 연작시「동경가마귀」를 중심으로 엮은 것으로, 관동대지진 등 韓·日 관계사의 오욕을 형상화했다.

철도청 설계사무소장

韓大淵 宗正
韓大淵(58물리) 등문은 최근

학술회의 참석자渡日

張源宗 宗正
모교 경제학과 교수인張源宗(52경세) 등문은 지난 25일부터 27일 까지였던 일본법政대학 경제연구소 설립1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 「東아시아 경제의 다이나믹스나 상호의존」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이 책은 黃軫熙(54국문·본회 부회) 장·영석중교(장) 등문이 최근 詩文集「蘭오른...」을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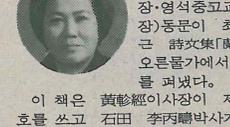
철도청 차관직에서 설계사무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철도안전수송에 전념해온 韓大淵은 중앙보급사무소 검사과장, 기술연구소 차관연구관, 철도청 기술연구소장, 부산공작장장 등 철도청에서 뼈가 굵은 철도차량 전문가이다.

한글학회

안재란(54국문·본회 부회) 장·영석중교(장) 등문이 최근 詩文集「蘭오른...」을 펴냈다. 이 책은 黃軫熙(54국문·본회 부회) 장·영석중교(장) 등문이 최근 詩文集「蘭오른...」을 펴냈다.

경기 민방위국장

黃鍾珪 宗正
黃鍾珪(60정치) 등문은 최근 내부부인사에서 남양주군수에서



안재란(54국문·본회 부회) 장·영석중교(장) 등문이 최근 詩文集「蘭오른...」을 펴냈다.

이 책은 黃軫熙(54국문·본회 부회) 장·영석중교(장) 등문이 최근 詩文集「蘭오른...」을 펴냈다.

강원도 기획실장

趙誠雲 宗正
趙誠雲(56경세) 등문은 최근 강원도 기획관리실장으로 영진했다. 趙誠雲은 국회사무처를 거쳐 양양군수, 속초시장, 강릉시장, 원주시장을 비롯 태백시 초대 시장을 지내는 강원도내 지방자치의 베테랑으로 지난 84년 우수공무원으로 훈포장정훈장을 받기도 했다.



동양경제 편집부장

金炳熾 宗正
金炳熾(60국문·본회이사) 등문은 최근 서울 경제신문 편집 부장으로 영진했다. 동양경제신문 편집 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金炳熾(60국문·본회이사) 등문은 최근 서울 경제신문 편집 부장으로 영진했다.

본회이사로 일해 오면서 모교와 본회 홍보활동에도 적극적인 활약을 보이고 있다.

蘇南정치학회초청 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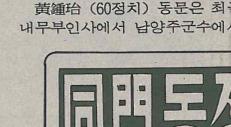
鄭基用 宗正
鄭基用(62정치·본회이사·민정당 국제연구소 상근연구원) 등문은 소련 정치학회의 초청을 받아 지난 17일부터 모스크바에서 열린 「蘇南과 美蘇관계」 세미나에 참석했다.



정당차원으로선 최초로 소련을 방문한 鄭基用은 그간 매일교포 韓民日報사장으로 재직하고 韓民日報사에서 왔으며 85년 프레스센터 건설과 함께 귀국, 동선사의 전문위원, 민정당대표위원 보좌역 등을 역임했다.

경계 민방위국장

黃鍾珪 宗正
黃鍾珪(60정치) 등문은 최근 내부부인사에서 남양주군수에서



안재란(54국문·본회 부회) 장·영석중교(장) 등문이 최근 詩文集「蘭오른...」을 펴냈다.

세동문 黨요식에

李鏡俊 宗正
李鏡俊(77형원·본회 상무이사·사진) 등문은 최근 민정당의 국제 평가위원회 의회·언어·정보분과위원장, 노동사의 국장, 행정 전문위원



李鏡俊(77형원·본회 상무이사·사진) 등문은 최근 민정당의 국제 평가위원회 의회·언어·정보분과위원장, 노동사의 국장, 행정 전문위원

제주 관광개발국장

宋武勳 宗正
宋武勳(61법학) 등문은 최근 제주도청 관광개발국장으로서 영



宋武勳(61법학) 등문은 최근 제주도청 관광개발국장으로서 영

전했다. 宋武勳은 그간 제주도 지방과장, 경기기획장 등을 거치며 제주원으로 인정받아 왔다.

W.F.B 부회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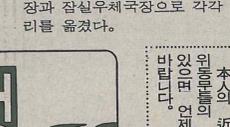
朴東琪 宗正
朴東琪(62불교·모교체육부) 등문은 최근 LA에서 열린 세계불교도우회의 제16차 세계대회에 한국본부 회장으로 대표단을 인출하고 참가했다.



이 대회에서 朴東琪은 WF B본부 부회장에 피선되었으며 1990년에 열리는 제17차 세계대회를 한국에 유치하기로 했다.

두동문 우체국장에

河弼壽·조성덕 宗正
河弼壽(60법학)·조성덕(83형원) 등문은 최근 체신부 서기관 인사에서 서울청량우체국장과 잠실우체국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河弼壽(60법학)·조성덕(83형원) 등문은 최근 체신부 서기관 인사에서 서울청량우체국장과 잠실우체국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경철계 두동문 영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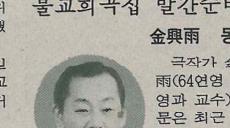
白亨祚·李鍾範 宗正
白亨祚(75형원·도선사 주지·본회 상무이사) 등문은 지난달 28일 한국청년교회 연합회 창립 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출되었다.



白亨祚(75형원·도선사 주지·본회 상무이사) 등문은 지난달 28일 한국청년교회 연합회 창립 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출되었다.

불교회 폭집 발간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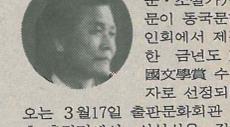
金興雨 宗正
금자가 金興雨(64연영·연영과 교수) 등문은 최근 불교회 폭집 발간을 기획·진행하고 있는데 불교계에 선 채 있음은 일로 관심을 끌고 있다.



金興雨(64연영·연영과 교수) 등문은 최근 불교회 폭집 발간을 기획·진행하고 있는데 불교계에 선 채 있음은 일로 관심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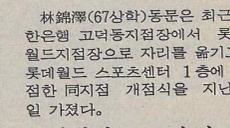
東國문학상 수상

趙廷來 宗正
趙廷來(66국문·소설가) 등문은 동국문학인회에서 제정한 금년 東國文學賞 수상자로 선정되어 오는 3월 17일 출판문화회관 4층 총강당에서 시상식을 갖는다.



롯데월드 지점장에

林錦澤 宗正
林錦澤(67상학) 등문은 최근 신한은행 고덕동지점장에서 롯데월드지점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롯데월드 스포츠센터 1층에 개점한 동지점 개점식을 지난 17일 거쳤다.



이사관으로 승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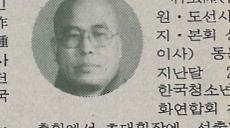
鄭泰泳 宗正
鄭泰泳(73형원·본회이사) 등문은 최근 내부부인사에서 이사관으로 승진했다.



鄭泰泳(73형원·본회이사) 등문은 최근 내부부인사에서 이사관으로 승진했다.

청소년 교회 협회장

朴玄愷 宗正
朴玄愷(75형원·도선사 주지·본회 상무이사) 등문은 지난달 28일 한국청년교회 연합회 창립 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출되었다.



朴玄愷(75형원·도선사 주지·본회 상무이사) 등문은 지난달 28일 한국청년교회 연합회 창립 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출되었다.

대종상 남우주연상

이덕화 宗正
이덕화(연영·영화배우) 등문은 지난 24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7회 대종상영화제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이덕화(연영·영화배우) 등문은 지난 24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7회 대종상영화제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지도자 특별상 받아

裴基烈·金鏡煥 宗正
모교 레슬링부 코치인 裴基烈(80체육·사진) 등문과 북상부의 金鏡煥(코치)은 지난 18일 대한체육회 주최로 체육회 강당에서 열린 「경기·지도자 시상식」에서 88 올림픽에 기여한 공로로 특별상을 각각 받았다.



裴基烈(80체육·사진) 등문과 북상부의 金鏡煥(코치)은 지난 18일 대한체육회 주최로 체육회 강당에서 열린 「경기·지도자 시상식」에서 88 올림픽에 기여한 공로로 특별상을 각각 받았다.

최고년 13.05%의 수익률 보장! CP가 가장 높은 수익을 보장합니다. 금액·1,000만원 이상 만기·90일 이상 대한투자금융 DAHAN INVESTMENT & FINANCE CORP 서울영등포구 투자상담 777-4991 대 대표 771-06

現代不動産仲介(株) 全國不動産仲介業協會 代議員 代表理事 副社長 金炯敏 (75 経歴) 대표전화 511-0781 FAX. (02) 547-5742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16-1 명성빌딩 202 호

의사회 보혁과장에게

최혜복 동문

최혜복(81년생) 동문은 최근 서울시의 사회 보혁과장으로 부임했다.

최동문은 20여년의 군생활을 마감하고 중령으로 예편, 사회에 첫 출판을 하게 됐다.

韓醫師 국가고시 수석 裴玉順 동문

금년 졸업한 裴玉順(89학번) 동문은 올해 韓醫師국가고시에서 수석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경북 영천출신으로 영천여고를 나온 裴동문은 평소 기초이론을 중요시하여 입상에 입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주로 기초에 역점을두어 왔으며, 앞으로

대학원에진하, 교직으로 진출할 포부를 밝히고 있다.

전무이사에 선임

孫明壽 동문

문규류 제조업체인(주) 마이크로코리아의 최근인사로서 孫明壽(77경원) 동문이 상무이사에서 전무이사로, 林鍾輝(78경원) 동문이 이사에서 상무이사로, 이상용(84형석) 동문이 차장으로 부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소방界 동문인 이동

韓金鍾·朴泰悠 동문

소방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韓金鍾(84형원·사단) 등문과 朴泰悠(85형원) 동문은 최근 서울시 소방본부 행정과장과 중부소방서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榮進轉補

▲鄭賢弼(79사학)→최근 군수 사립문 본부대장으로 전보. ▲金吉賢(85형원)→최근 국제 공학 관리공단 운영이사에서 기획이사로 전보.

▲예종대(77경제)→최근 거제도 대우조선(주)인사부과장에서 연수부과장으로 전보.

▲韓普光(75불교·도교교수)→최근 일본 경도대에서 「신라정토사상」 연구부 박사학위 취득.

▲元忠福(형원)→한국경제신문 판매국장으로 전보.



移轉·開業

▲차재원(72경원)→지난 14일 롯데빌딩3층컨타에 골프숍「자이안트」개업.

▲金鍾業(84경원·본회이사)→지난 15일 동대문구 용두동에 「신일특수강」을 개업.(927)5900



結婚

▲黃明秀(53정치·본회지도위원·국회의원)→지난15일 정오 교동교회에서 三朋 결혼.

▲金龍慶(59경제·본회사무이사·공인회계사)→지난18일 오후 3시 천기와의식당에서 자녀 연실양 화축.



訃音

李龍範 동문 別世

前 道교 대학 원장인 李龍範 동문은 지난 31일 오전 11시30분 유족들과 李龍冠 총장, 黃彰經 이사를 비롯한 교수·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정각연에서 路祭로 열려 교인의 명복을 빌었다.

▲朴大赫(63형원·본회이사·홍화대표)→지난날 여의도 삼부 A P T 1동 5호서 모친상. 발인 1월26일

▲金煥峯(59불교·도교불교교수)→지난1월1일 모친상.

會費를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會長團분담금

- ▲유근찬(49문학)=20
▲이종호(56법학)=4
▲이영준(59법학)=4
▲황명수(53정치)=5

◇常務理事會費

- ▲조정환(49사학)=20
▲김재기(60경제)=10
▲김재국(61경제)=10
▲김효석(60법학)=10
▲육기동(65시공)=10
▲김진찬(62법학)=10
▲나상용(49사학)=10
▲박삼선(55법학)=10
▲원용선(63경원)=10
▲박현석(75법원)=10
▲김용호(59경제)=10
▲박근우(61정치)=10
▲한상근(60정치)=10
▲김낙진(81형원)=20

◇理事會費

- ▲이상진(66정치)=5
▲김용성(63정치)=5
▲이광우(56불교)=5
▲임영선(57경제)=5
▲박종윤(59경제)=5
▲신현태(57경제)=5
▲배종대(62형학)=5
▲김원표(55정치)=5
▲임철준(54국문)=5
▲장필민(68상학)=5
▲홍동호(62정치)=5
▲유지선(82경원)=5
▲김재태(89형원)=5
▲박수철(57경제)=5
▲설택(59경제)=5
▲김정진(63법학)=5
▲정주철(59정치)=5
▲나성규(63사학)=5
▲정진영(62경제)=5
▲조문연(60법학)=5
▲손기락(63경제)=5
▲이훈남(65정치)=5
▲남시혁(58정치)=5
▲이경순(64법학)=5
▲이영정(58법학)=5
▲민병진(62정치)=5
▲이준표(74정치)=5
▲김복철(62정치)=5
▲이중국(57경원)=5
▲조재호(65불교)=5
▲민경봉(64법학)=10
▲마경자(53국문)=5
▲조충진(58정치)=5
▲박배근(67법학)=10
▲임화(55법학)=5
▲강병국(68봉경)=5
▲정용담(63경제)=5

- ▲유영수(66형학)=5
▲김익상(65법학)=5
▲황경호(68경원)=5
▲박찬대(62봉학)=5
▲송영인(67봉학)=5
▲이영길(68봉학)=5
▲최병률(61법학)=5
▲이창영(52경제)=5
▲이인정(72상학)=10
▲김재국(61경제)=5
▲나인표(59경제)=5
▲장필민(69상학)=5
▲우정환(67봉학)=5
▲최태희(45형원)=5
▲공진석(61경제)=5
▲최재화(67사학)=5
▲노부식(78형원)=5
▲서옥범(79경원)=5
▲이영철(79경원)=5
▲이명용(64정치)=5
▲정태우(73형학)=10
▲김명수(78형원)=5
▲민병현(54형학)=5
▲최재희(80경원)=5
▲신현호(84국원)=10
▲김원표(85경원)=5
▲임철준(54국문)=5
▲한규범(82경원)=5
▲유영선(75형원)=5
▲황경석(73형원)=5
▲박부일(64상학)=5
▲김종일(58법학)=5
▲유영식(61법학)=5
▲김재진(63정치)=5
▲김필환(58법학)=5
▲이정우(76경원)=5
▲김근국(64경제)=5
▲홍사현(63사학)=5
▲안국순(60경제)=5
▲이상준(60정치)=5
▲김병만(62국문)=5
▲백부기(63법학)=5
▲장우성(67대원)=5
▲한기성(73경원)=5
▲박시범(69상학)=5
▲구재태(67경원)=5
▲정병환(67경원)=5
▲홍우동(83경원)=5
▲김동진(61경제)=5
▲이재성(86경원)=5
▲이태경(56사학)=5
▲전순호(57봉학)=5
▲남도연(52경제)=5
▲원갑문(71상학)=5
▲신동진(66상학)=5
▲조희영(63경원)=5
▲이윤근(82경원)=5
▲이영화(54법학)=5

- ▲김중성(48형학)=5
▲윤여달(68법학)=5
▲최희선(61경제)=5
▲한현석(78경원)=5
▲홍원표(68정치)=5
▲이영길(68봉학)=5
▲오승태(63경제)=5
▲신민선(63경제)=5
▲김영일(63정치)=5

◇年會費

- ▲박삼균(58법학)=1
▲홍재일(59경원)=1
▲정기서()=1
▲이병우(61국문)=1
▲이재일(87경원)=1
▲이상수(73경원)=1
▲임영태(72경원)=1
▲이상성()=1
▲정준근(86경원)=1
▲김덕수(76인원)=1
▲권수원(59사학)=1
▲부자철(78형원)=1
▲김홍선(67경원)=1
▲이종화(64법학)=1
▲김진경(사학)=1
▲임정순(60경원)=1
▲민하희(82경원)=1
▲박병용(68형원)=1
▲이상복(60국문)=1
▲유우호(73형원)=1
▲정해석(57봉학)=1
▲조영식(74형학)=1
▲장명진(65국문)=1
▲안광우(경원)=1
▲강성남(86경원)=1
▲김철호(80형원)=1
▲장성일(57정치)=1
▲박현경(80형원)=1
▲박성배(68형원)=1
▲정수남(58경원)=1
▲김영대(61경제)=1
▲황윤근(국문)=1
▲이인순(63화학)=1
▲전용준(85경원)=1
▲박노혁(59경제)=1
▲김길수(85경원)=1
▲이장걸(62사학)=1
▲우동호(86경원)=1
▲이종범()=1
▲조종근(55법학)=1
▲이재철(82경제)=1
▲이재성(86경원)=1
▲이태경(84경원)=1
▲현수찬()=1
▲김영호(65경외)=1
▲김경중(59경제)=1
▲최태동()=1
▲유영선(60경제)=1
▲조희영(63경원)=1
▲변종택(70화학)=1
▲김용필(경원)=1

- ▲이홍우(80체교)=5
▲김해동()=5
▲염상윤(64정치)=5
▲김재민(68경외)=5
▲김태근()=5
▲박종호(60정치)=5
▲박귀희(83불교)=5
▲안승교(63경원)=5
▲김세경(83형원)=5
▲오정복(76국문)=5
▲박인규(65불교)=2
▲최운성()=2
▲이홍대()=2
▲송승우(87형학)=3
▲김용수(50국문)=1
▲박형석(60경원)=1
▲김자수(85부원)=1
▲김홍삼(경제)=1
▲이화배(63경제)=1
▲임재일(56경제)=1
▲정만식(49사학)=1
▲이일강(84시공)=1
▲김기찬(83형원)=1
▲이윤홍(61법학)=1
▲김진익(57법학)=1
▲김성복(68형원)=1
▲진경원(72법학)=1
▲박학선(84경제)=1
▲박찬중(61법학)=1
▲김용원(61정치)=1
▲최준원(83부원)=1
▲유우호(81부원)=1
▲김유진(82국교)=1
▲김재중(82경원)=1
▲유우근(71봉학)=1
▲김윤진(81경원)=1
▲김홍찬(63법학)=1
▲김인호(경제)=1
▲김규환(64법학)=1
▲김현철(67경제)=1
▲박현경(80형원)=1
▲박성배(68형원)=1
▲조희성(84경원)=1
▲지만희(71법학)=1
▲최지환()=1
▲김영하(경제)=1
▲이상용(75형원)=1
▲김재차(법학)=1
▲조준호(68봉학)=1
▲이영식(74법학)=1
▲박종순(58정치)=1
▲민승화(79법학)=1
▲이근선(49문학)=1
▲양승재(74경원)=1
▲김정식(68경제)=1
▲김경화(68법학)=1
▲정주찬(61경제)=1
▲김진태(61사학)=1
▲김영호(74인원)=1
▲원유선(86국문)=1
▲이병순(58경원)=1
▲고문철(49사학)=1
▲최재승(경원)=1

- ▲신규현(87천산)=
▲이영준(68경원)=
▲최준호(63경제)=
▲김홍탁(경원)=
▲연태경(85상공)=
▲윤영(81경원)=
▲이인선(상학)=
▲민종석(74부원)=
▲정구인(64국문)=
▲김정만(62국문)=
▲장정석(54국문)=
▲이기철(73경제)=
▲한준희(49문원)=
▲최우환(65경원)=
▲박원수(83경원)=
▲정영선(66법학)=
▲김기환(88법학)=
▲김성구(60경제)=3
▲이수팔()=2
▲신동원(74부원)=1
▲허경우(64경제)=1
▲한만재(65경원)=1
▲정병진()=1
▲이경수(78천산)=1
▲임서(65상학)=1
▲박태선(68경원)=1
▲이순우(64경제)=1
▲서심익(81형원)=1
▲이상우(68법학)=1
▲정혁(58경제)=1
▲황재성(63경원)=1
▲나현철(경제)=1
▲정상식(62경제)=1
▲정은표(78)=1
▲안동규(72불교)=1
▲김대원(63경제)=1
▲김춘호(76천자)=1
▲강진희(78경제)=1
▲채병선(18사학)=1
▲천규환(86체교)=1
▲민영수(86경원)=1
▲김정근(60경제)=1
▲김병우(69봉성)=1
▲이규철(65경외)=1
▲배순서()=1
▲김형철()=1
▲김광옥(85경원)=1
▲이형진(81경원)=1
▲성나훈(82형원)=1
▲(44회전)=1
▲(64국문)=1
▲김용성(69경원)=1
▲이상진(66경원)=2
▲정영관(84형원)=1
▲김재태(49문학)=1
▲유원철(71봉제)=1
▲박동원(57법학)=1
▲이상용(84형원)=1
▲이수인(68경원)=1
▲김성구(경제)=1
▲조남철(63상학)=1
▲이종복(불교)=1
▲김병규(88경원)=1
▲이경일(82부원)=1
▲이상우(71도공)=1
▲정병철(80경원)=1
▲(69형원)=1
▲정문선(85경원)=1
▲안민동(81형원)=1
▲이용복(71경원)=1
▲이호진(79형원)=1
▲김용성()=1
▲이상경(66경원)=1
▲정영관(84형원)=1
▲김재태(49문학)=1
▲유원철(71봉제)=1
▲박동원(57법학)=1
▲이상용(84형원)=1
▲이수인(68경원)=1
▲김성구(경제)=1
▲김대원(71경원)=1
▲김영철(61정치)=1
▲이승호(66화학)=1
▲김영태(77경원)=1
▲이영선(64상학)=1
▲허대근(68봉학)=1
▲이희희(71법학)=1

◇단체회비

- ▲경남지구회(회장: 정민우)=10
▲명성여고 동문회(회장: 이원주)=30
▲이상동(66경원)=13
▲부산지구회(회장: 남기석)=30
▲럭키화재보험동문회(회장: 원장영)=10
▲농업진흥공사동문회(회장: 정도식)=15
▲이찬동(68봉학)=1
▲이희준(68봉학)=1
▲이희준(68봉학)=1
▲이희준(68봉학)=1

「있을수 없는 스승」은 중국 의 學統을 지켜오며 후학양성에 힘써온 역대어사님들을 뒤하고 모교 83년전통의 위대한 길을 더듬어 보면서 師弟간의 情을 더욱 돈독히하기 위하여 마련된 연재물입니다.

이번번호에서는 일제침략하에 려왔던 모교 專門學校의 글로 옮깁니다. <편집자註>

국민학교 교사로 근무하던나는 중앙 불교전문학교가 해방전반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대륙 진출의 역군을 기른다는 용어(興亞)를 설치한당시에 교직을 그만두고 거기에 입학

분으로 회사원을 하다가 경성제국대학원학과를 나와 학자가 됐다. 이분은 에너지철학을 주장했으며 자기가 이 분야에 최고 권위자라고 뽐냈다. 키가 커서 몸매는 교탁을 잡고 허리를 굽으며 열심히 어너지를 발휘했다. 벌써 저 세상사람이 되었다.

중국문화학과 나온 아주 예쁘고 양친한 학자였다. 조용조용한 수업이 우리를 머리에 눈 녹듯 스며 들었다. 6.25때 월북했다니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시냇 물은 모른다더니 참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아 있는지 저 세상 사

화전문학교 초대교장으로왔다. 한국말을 한국어 이상으로 잘하는 한국통이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뚱뚱하고 카랑 카랑한 성격이 재단학과 잘 맞지 않아 원하던교사 그만두었다. 아마 벌써 고인이 되었을 것이다. 渡邊信治先生은 제 2대교장으로

특경계의 齋谷亮己先生, 종교학의 佐藤泰壽先生을 지내며 경험비한 훌륭한 교수였고 같이 있는 강이는 우리를 경청하게 했다. 교수는 역시 실력과 열성이 대학교수를 만든다.

정경사범학교 교수로 있는吉田正賢先生은 국민필리를 맡았던 데도 문장까지 잘하는 제법 재능있는 우리들을 출제할 수 없게 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인을 잘보는 인식에는 우리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였다. 교육은 역시 민족과 국질을 초월하여 피교육자에게 존경을

있을 수 없는 스승

“실력있고 열성있는 교수가 길이 기억돼”

半世紀가 지난 나의 惠化 專門學校 시절은 이제 아름다운 과거의 추억으로 남아

했다. 그것이 1940년 9월 5일인 49년, 즉 반세기가 넘었다. 과거나 아름다운 추억으로 돌아온다는 내 기억을 그대로 돌려 회상의 날개를 퍼든다. 특히 우리들을 가르치시던 선생님들의 얼굴을 다 더듬어 보셨분들의 은공을 새겨 보기도 한다.

먼저 金斗憲先生이다. 이분은 전남 남포도로 일찍이 일본동경제국대학 윤리학과를 나오신 머리가 명석하고 연구가 깊은 분이다. 후에 서울대에서 朝鮮家族制度研究라는 논문으로 진학하셨

鄧駿談先生. 이분은 경성제대 예문학과를 나온 선생인데 열심이 가르쳤다. 너무 딱딱했고 발음이 일본식이었다. 아마 일본선생에게 영어를 배웠나보다. 후에 모교부 국장이 되었는데 6.25때 남북되었다니 그 생사를 알 길이 없다.

權相老先生 이분은 경북 문경분으로 우리나라의 유명한 불교학자였다. 불교를 가르쳤는데 해박한 지식과 구수하고, 익살스러운 화술은 학생들에게 대단 인기였다. 해학은 역시 여유로운 것이요 정이다. 해학이 인생을

잡이 되었는지 알 길이 없구나. 金東濬先生 이분은 일본체조 학교를 나온 체조선생이다. 휘문고보에서 徐相天씨와같이 갑

權相老先生의 박식함과 구수하고 익살스러운 화술은 당시 학생들에게 대단 인기

로 온 분. 경성사범학교 교장을 오래했다. 동경고등사범학교를 나온분으로 한시를 잘하며, 웃음씨도 잘했다. 폭이 넓고 원만한 대교육자였다. 우리 졸업생의 취직을위하여 노구를 이끌고 만주벌판을 누볐다. 한국인을 알아주는 덕망있는 교장이었다. 이분도 타계했을 것이다. 小武竹夫先生. 경성제대 중국 문화학과 나온 중국어 교수였

진보적사상으로 총독부의 감시를받은 李東華先生은 지금도 지조를 지키며 어렵게 살아

다. 중국어시간을 많이 맡아 열심히 가르치며 발음도 좋았다. 우리 중창으로 일본 橫濱영사로 있었던 李起龍군이 일본에서 만났는데 지방의 모대학에서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었다.



▲42년 惠化專門專門科卒
▲64년 京畿道敎務 廳務局長
▲82년 仁川高校長 停年退任

받고 학생의 뇌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우리가 학교에 다닐때는 그들이 말하는 소위 대동양전쟁(제 2차세계대전) 중이어서 선생들을 만날 수 없었고, 가깝게는 3년간의 국민필을 읽고 가르쳤고 우리도 그러했다.

우리 졸업반은 조처에 의하여 입학한지 2년만인 1942년 9월 26일에 졸업했다. 많은 사람들이 대륙에 진출했으며 학교 살기 위하여 그들의 정황에 따른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나 몇몇 것 못한 마음도 있다.

나는 민주에 진취하여 口商 商事株式會社社員이 되었다가 일본들의 정황을 피하여 다시 여주농업학교 선생이 되어 죽 교육계에 종사했다. 그 후 후과가 3회인가 계속되다가 일본 패망과같이 없어진 것은 섭섭한 일이다. 그러나 졸업생들이 각계에 진

머리속으로 눈누듯이 스며들던 裴浩生先生의 조용조용한 수업은 영원히 잊지못해

출하여 서울에 車柱轎교수를 비롯한 대학교수 한국은행 부장 등 금융계 간부 나와같은 중고등학교 교장 평론가 趙演敏과 같은 문인들 다방면에서 활약한 것을 다듬어 생각해 본다. 우리를 열심히 가르친 여러 선생님에게 새삼 감사한다.

惠化專門學校가 종합대학인 東國大學校로 승격하며 사립의 명문으로 군림하고있는 것은 기쁘다. 그러나 나는 이 기회에 다른 학교와 손색이없는 대학교가 되기를 바라며 몇가지 충언을한다. 인본정려를 인수한 까닭으로 어쩔수 없었지만 처음부터 좁은 곳에 자리를 잡은 것은 앓을 내다보지 못한 오세한 처사였다.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사정이 허락하는대로 건물과 시설을 알차게 활용하며 가르치고 배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한다.

1906년 한국불교공동체인 舊韓國政府의 인가를 얻어 蓮華學校로 발전한지 춘풍유수 8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1세기를 맞은 동국대학교가 진부 풍류의 나라의 문명이 깨어 한다. 역사와 더불어 우리의 문명으로서 발전하여 많은 인재를 배출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하며 이 편을 놓는다.



▲金斗憲先生

복뼈 해준다. 특히 교육자에게 있어 해학은 감의를 배가하여 학생 머리에 들어간다. 1952년 동국대학교 초대총장이 되었고 62년동국대학교에서 명예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65년 입적(入寂)하였다. 朝鮮佛敎史, 朝鮮宗敎史, 朝鮮儒敎史 등 많은 명저(名著)를 남겼다. 국보급 대불교학자였다. 金東華先生은 승려 출신의 은화한 불교학자였다. 불교계

해박한 지식에 유모어를 섞은 金斗憲先生의 재량제량한 윤리강의는 귀에 쏙쏙 들어

으로 경성제국대학 중국문화학과를 나와 후주고교교수로 근무하다가 우리학교에 와서 중국어를 가르쳤다. 중국어 시간이 많아 자신 우리들과 접촉이 잦아 다정한 교수였다. 후에 서울대로 옮겨가 중국문화과 주임교수가 됐다. 연구실에도 여러번 찾아가 답사했다. 약이라고는 전혀없는 분인데 술과 마작을 너무 좋아해 지금은 병석에 누운지 오래다. 애석한 일이다. 金龍培先生은 경기도 광주



▲金東憲先生

龍培先生은 자신이 基督의 최고 권위자라고 자처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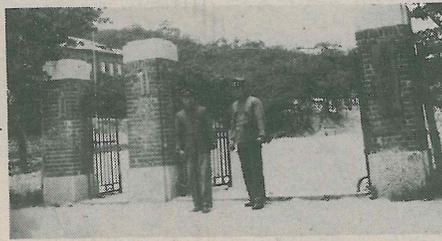


▲車相老先生

는 지금도 지조를 지키며 어렵게 살아

▲惠化專門當시의 校舍와 校門

체조로 이름을 날렸던 본인대 우리학교에 와서 체조를 맡았다. 말을 활기 있게 하는 적식 적식한 분이였다. 훗날 동인천중학교 교장노릇을 했는데 술을 너무 좋아해 일찍 저 세상으로 갔다. 역시 술은 과음하면 단명하



열심히 가르쳐주신 선생님들께 새삼感謝 우수敎員 확보로 옛전통 이어야

학계에서 많이 활약했으며 후일 동국대학장으로 연임하셨다. 李東華先生은 병안도 출신인데 일본 동경제대법학과를 나왔다. 사상이 좀 이상하여 총독부의 감시를 받았으며 후일 어머노 사귀었다. 해방후 사회담에서 정치활동을 하다가 이복에 넘어갔다. 그러나 이복과 실제가 다른 것에 환멸을 느끼고 다시 남으로 내려와 진보적정치를 계속했다. 지금은 그 지조를 지키고 어렵게 살아가다 한다. 지조를 끝까지 지키기만 잡어러운 것이다. 李東濬先生 이분은 경성제대

는가 보다. 李東濬先生 이분은 열의 譜대 高善의 유소년성이었는데 1주에 1시간 우리를 지도했다. 유도계의 원로로서 아주 엄격하게 가르치는武者형 선생이었다. 이제 우리 한국인 학생은 기억하는데도 다 흠여보았다. 일본인 선생도 총독부 방침에 의하여 몇 분 있었다. 그분은 해방후 자기 나라로 갔지만 그분도 변절한 우리 선생이 있었나 언급하는 것이 시제간의 도리이리라. 高橋亨先生 이분은 동경제대 출신 경성제대 교수였는데 해

나갔다.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 그는 이직 살아 있을것이다. 그이해 중국어를 맡았던 몇 있는 신사 董長志, 키가 작은 周德가 중국인 선생도 열심히 가르쳤다. 우리들은 그분들의 정확한 발음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교육과정의 상을 중국어를 배운 우리는 중국어의 선구자 노릇을 했다. 나도 계속 중국어를 공부했지만 중국어의 내가 가졌을런데 어마는 배워서 계속하는 것이 없으면 방과의 세제로 가는 것이다. 경성제대교수인데 감사로 나온 교육학의 松月秀雄先生, 대

모교 「교수연구년제」 시행

10년 이상 근속교원 대상...직원위탁 연구도

모교양국은 10년 이상 근속교원을 대상으로 「연구년제도」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수능력개발과 학술편찬사업 등을 위한 연구기간을 1년씩 부여함으로써 학교에 복귀한 후 학문적기여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 제도는 연간 전임교원 전체의 5% 이내 인원을 선발, 봉급·연구비 및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제안업무는 학술부에서 주관하게 된다.

또한 3년 이상 근속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부터 최고 5학기까지 「직원위탁연구제도」도 마련, 「연구년제도」와 동시에 시행한다.

모교 직원은 전문대학원 등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도록 지원함으로써 직원의 근무능력향상과 행정전문화를 지향하기 위해 제정된 「직원위탁연구제도」는 본인의 청원, 또는 학교계획에 의거 부

재가 추진해 선발하는데 연구에 필요한 등록금전액을 지원하고 조정의 교제내도 지원하며 제안업무는 총무과에서 담당한다.

현재 「연구년제도」는 서간대를 비롯한 몇몇 카톨릭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직원위탁 연구제도는 국내에서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교수연구년

제도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명문대학들이 교수들에게 강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학문연구에 전념할수있는 기회를 주기위해 시행해온 것으로 앞으로 모교 학문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이 제도의 충실한 시행을 위해 교수 증원등의 보완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각종대회서 금메달 4개 획득

모교체육부소속 레슬링·복싱·빙상선수들

모교 체육부소속 선수들이 각종대회에서 금메달 4개를 따내는 등 선전을 펼쳤다.

레슬링의 최영오(체고4)·심상준(체고2) 등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태권에서 열린 「이탈혁명기념 태슬링대회」에 참가한 자유형 62kg급과 그

레코르한형 68kg급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 복싱의 조인주(체고2)·신수는 「제12회 인도네시아 내 통령친 국제야마주어복싱대회」에 밴텀급으로 출전해 작년 유럽 챔피언인 소련의 로마노프를 꺾고 정상에 올랐다.

또한 빙상의 이문오(경영대학원)선수도 18일 태슬링대회에서 열린 「제4회 전국 남녀 인도어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서 남자 부종합 우승과 함께 3관왕에 올랐다.

클루즈업

“慈愛를 통한 醫學으로 건학이념 구현해야..”



모교 정년퇴임하신 金鍾高 先生

되었고 그것은 앞으로도 東國醫大 발전의 추동력이 될것이라며 초대대학장으로서의 고충에 대한 질문을 일축한 김교수는 「연구·교육과 더불어 진로기능이 필요한 의과대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부언도 잊지 않는다.

경소 학생들과의 시각차를 일소하고 학문에 정진함에 있어 學·術·道가 하나로 어우러진 것을 행태도록 이끄는 것이 교육철학이라는 김교수는 장남장녀역시 전문으로 성장해 醫家를 이루시기를 바라는 등 그러한 장인의식과 소명의식의 소산이었다.

80년이 넘는 역사의 東國이 발전하려면 자기혁신이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김교수는 「불교건학이념이 어김없이 실현되고 그중 자애를 통한 의학을 바탕으로 의대부속병원이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바램을 피력했다.

『의학에 몸담았을 것을 천직으로 여기고 진배해 온 김일뿐』이라며 담담한 한마디로 소감을 밝히는 김鍾高 교수. 지난 87년 9월 교수로 발령된지 얼마안돼 초대의과대학장 부속병원장으로서 부임한 이래 15개월의 재직기간이 있지만 내재된 것이 많아서 쉽다며 그간 깊은정열을 가진 동국인이 되었음을 드러냈다.

단지 초창기로서의 어려움이라던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생선, 학교, 동료교수들과의 깊은 성원과 이해가 큰 힘이

전체교수회장에 金鎔貞교수 특별위원회설치등 회칙개정



에서 서울·경주 양캠퍼스의교수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체교수회 회칙개정과 교수회장선출을 위한 이번회의에서는 金鎔貞(철학과·사건)교수를 회장으로, 김재호(인공과)교수를 서울캠퍼스부회장으로 선출한 뒤 회칙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전 9시 전체정족수 3백58명(서울 2백30, 경주 1백28명) 중 2백9명이 참석한 이번총회에서는 吳亨根(불교과) 교수



◇89학년도 입학식 1989학년도 신입생(3천 8백31명·경주 캠퍼스포함)입학식이 3월 2일(경주 3일) 오전 11시 李智冠 총장등 모교간부와 본회 柳周燾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모교 만해광장에서 열렸다.

大學·財團 간담회

10내대표로 연석회의구성

모교 장년개발대책 논의의 목적이었던 재단법인, 대학, 학처·실장간담회가 지난날 25일 오후 모교이사실에서 열렸다. 黃熙經재단이사장을 비롯한 남이사진원희, 李智冠모교총장을 비롯한 보석교수들 40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교발전방안을 논의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합의되었다.

▲상호기밀한 협력으로 대학발전에 적극협조한다. ▲간담회의를 통해 대학의 어려움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대처한다. ▲총 5인의 대표를 선정하여 연석회의를 구성한다. ▲소위원회위원은 이사장과 총장이선임한다.

모교소식

법당·여학생기숙사 기공 경주캠퍼스 정각원과 여학생기숙사가 지난날 10일 기공식을 올리고 부지경리직업에 들어갔다.

정각원과 여학생기숙사건립은 연료취와 전기시설지원에 각각 부지가 선정됐는데 오는 90년 2월 완공될 예정이다. 이번엔 신축되는 정각원의 총공사비 3억 2천여만원이 총 李智冠총장을 비롯한 불교신자들의 시주로 마련됐다.

「한국불교전서」출간 출판부산한 한국불교전서편찬위원회는 불교사적간행사업의 일환으로 부고 25일 조선말기불교사를 정리한 「한국불교전서 제 9책 조선시대편 Ⅱ」을 출간했다.

한국불교전서는 신라시대부터 조선말까지 한국인이 저지른 현존불교서적들을 총 11책으로 완간할 예정이다.

한의사교시 1백% 합격 경주캠퍼스 한의과대학출입 90명은 지난날 13일 국립보건원에서 실시된 89년도 한의사교시에서 전원 합격하는 영광을 안았다.

등록금등돌림 결의대회 「등록금등돌림 민주적 총장선제제정취를 위한 중앙인결의대회」가 지난 13일 오후 1시 도서관에서 학생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연영과 30주년기념공연 연극영화과는 창과 30주년 기념공연으로 「안도라에서의 한 젊은 유대인의 죽음」을 3월 8일부터 11일까지 학과 스튜디오에서 상연한다.

1988학년도 博士學位 취득자 프로필

- ◇鄭俊洙(문리학과) = 「李尚迪詩文學研究」 ▲52년 7월 27일생 ▲74년 인천교육대주 ▲82년 한성대국문과주 ▲84년 모교대학원 석사과정주 ▲한성대박사 ▲대전대박사
- ◇鄭泰熙(문리학과) = 「朝鮮初期 社會犯罪에 관한 研究」 ▲46년 4월 17일생 ▲69년 고려대학교주 ▲81년 모교대학원 석사과정주 ▲숙명여대박사 ▲모교박사 ▲문교부 교육연구관
- ◇李亨圭(교육학박사) = 「학교장 지도성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38년 5월 25일생 ▲62년 서울대학교사범대주 ▲76년 경희대학교대학원주 ▲전주교육대학교주 ▲정읍고등학교 교사 ▲전주교대부교수
- ◇鄭來鉉(경제학박사) =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47년 3월 19일생 ▲70년 한양대기계공과

- 과주 ▲78년 연세대 경영대학원주 ▲제철연지연구소(주)사업계획부장 ▲모교 경주캠퍼스 강사
- ◇崔文卿(경영학박사) = 「서비스산업의 효율성측정에 관한연구 - DEA 모형을 이용한 市中銀行의 경영효율분석을 중심으로 -」 ▲50년 3월 24일생 ▲72년 모교경영과주 ▲74년 서울대경영대학원주 ▲국방관리연구소 선임연구원 ▲한양대 조교수
- ◇宋基範(경영학박사) = 「國際간테이내 복합운송에 관한 보편적의 연구」 ▲47년 7월 17일생 ▲76년 의국대박 ▲79년 의대부속대학원주 ▲전주대박사
- ◇李敏行(이화박사) = 「CdX₂-Cu-Fe₂O₄ ferrite system의 Mossbauer effect」 ▲45년 8월 30일생 ▲72년 한양대 원자력공과과주 ▲80년 서울대대학원주 ▲홍대공과

- 과 교사 ▲삼지대학 부교수
- ◇全邊勝(농학박사) = 「韓國잔디(Zoysia japonica STEUD.)의 實生繁殖法確立에 관한 研究」 ▲35년 7월 3일생 ▲61년 서울대농과과주 ▲76년 건국대학원주 ▲국립농산물연구소 농림기과
- ◇金致珠(이화박사) = 「Incidence and symptoms, Transmission, Identification and Control of Virus Disease in Red Pepper」 ▲56년 2월 1일생 ▲79년 모교농과과주 ▲81년 모교대학원석사과정주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연구소 연구사
- ◇金明海(이화박사) = 「住家性위에 生하는 진드기군집의 구조와 동태에 관한 연구」 ▲37년 3월 28일생 ▲59년 서울대학교 사범대출 ▲71년 연세대학교 대학원출 ▲시흥고등학교 주임교사.
- ◇韓相澈(공학박사) = 「築堤에 의한 限定두께 軟弱地盤의 變動」 ▲40년 12월 2일생 ▲66년 동아대토목공학과주 ▲72년 동아대대학원주 ▲부산수산대 강사 ▲부산공대대교수 ▲부산시 건축주거전문위원
- ◇金一鎭(공학박사) = 「韓國建築의 變遷에 관한 研究 - 柳峯·書院·寺刹建築을 중심으로 -」 ▲35년 10월 26일생 ▲88

- 년 서울대 건축공학과주 ▲75년 영남대학교학원주 ▲일본동경대 연구원 ▲영남대 교수
- ◇金明生(공학박사) = 「高層建築物의 外壁防水技法에 관한 研究 - 시커톤을 중심으로 -」 ▲42년 1월 4일생 ▲63년 인하공대출 ▲83년 명지대학교학원출 ▲아주건설이사 ▲한국방공사 건축공무부장 ▲永永邑(공리박사) = 「中心壓縮荷重을 받는 鋼柱의 推屈強度에 관한研究」 ▲44년 4월 8일생 ▲68년 조선대건축공학과출 ▲79년 조선대학교학원출 ▲조선대 교수 ▲광주시 건축위원 ▲대한건축학회 관주·전남주부장
- ◇張榮相(공학박사) = 「머티리얼즈의 酸化安定성에 대한 物理的 研究」 ▲45년 2월 25일생 ▲73년 모교의공학공학과출 ▲76년 연세대산업대학원출 ▲서울보건전문대강사 ▲농성기술개발연구소 주임실장
- ◇徐炳濤(이화박사) = 「老後適應에 관한 연구 - 生活滿意度와 가족의 交流度를 중심으로 -」 ▲35년 10월 7일생 ▲59년 서울대 가정학과출 ▲78년 건국대대학원출 ▲충북대 부교수 ▲한양대교수

졸업식 유감... 떠오르는 얼굴들

김신남 (89국문)

『아니 그래, 연탄가스를 마셨단 말야?』
『그렇다구. 집 앞의 순대국집 부뚜막에서 말야』
술자리가 파하기도 전, 유난을 떨며 먼저 집으로 가겠노라 서둘러 녀석이 길거리에서 잤단다.

이에 기대어 자다가, 불씨가 남아있던 연탄에서 나온 가스를



맡은 것이다.
『아아, 너 그렇게 죽어봤자 「연탄가스 중독사 1명」으로 처리될 뿐야. 몰사려라 응?』
녀석을 필두로 불상 앞에 모여든 다른 녀석들의 환골도



“싸이코 해산식”을 이유로 모여 앉아 아홉명 각기의 독립을 선언하고 終齋를 기울인 후에도 다음날이면 어김없이 불상앞으로, 아니 부처님 뒷통수(?)로 모여들 것이었다.

흡사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같았다. 어떤 녀석은 라차도 놓치고 걸어 가다가 동오대로 밑에서 잠이 든것같은 새벽쯤이었을까, 경찰이 깨우더라. 신분증이 없어 끌려가진 했지만 덕분에 지방에서 잘 잤단다.
그리고 다른 녀석의 무리는 남대문시장에 파하고난 거리의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국화다발

을 주워들고 울지로 지하도가 밤을 새워 쫓겨내며에 심해졌고 어떤 녀석들은 여인숙 방에서 코러스로 코를 뽑았다.
그날 우리들은 어떤 모토 아래 모여 앉았던 것인가.
우리를 싸이코의 죄대의 유치한 고인은 「왜 나는 「너」가 아니고 「너희들」 중의 한 명으로 지칭되어야 하는가?」였다.
그래도 우리는 늘 원점이었

다. 그걸 처럼 「싸이코 해산식」을 이유로 모여앉아 아홉명 각기의 독립을 선언하고 終齋(終)를 기울인 후에도 다음날이면 어김없이 불상앞으로, 아니 부처님 뒷통수(?)로 모여들 것이었다.

어쩔 수 없는 놈들, 어쩔 수 없는 정으로 실타처럼 엉켜버린 녀석들...
그러나 지금 녀석들은없다. 졸업식은 쓸쓸했다. 때안인 비로 변경된 졸업식와 앞에서 축하객과 졸업생들은 우산 아래 서서적이고, 체육관에 마련된 식당에는 화사모를 쓴 졸업생보다 연단에 앉은 총장님, 이하 스승들의 대열이 더 많았다.

녀석들은 지금 무얼 하나. 한 녀석은 울진의 바닷가에서 취미에도 없는 게—꽃게, 아니면 열게?—를 잡고, 한 녀석은 서해의 등대를 상대 삼아 「침춘을 돌려다오」구성진 삼장을 부딪혔다.

그리고 또 한녀석은 팔경이 가 되어 눈알을 포목이며 「김일성 주체사상」을 감론한다.
모르는 얼굴들로 번잡한 졸업식장을 빠져 나왔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만은 변함이었다. 「승권의 齋」처럼, 나는 「들편을 달리는 종마」처럼 지난 4년 여동안 싸이코들과 얽힌 개기와 진흙함의 들편을 가로질러 오늘에 왔다. 그리고 또 내일도 그들 합성을 꺾듯이 스쳐 보내며 달릴 것이다. 하늘로까지 뻗어 오를 대궐원을 맡이 다.

新刊안내

「牛眠山の正氣를...」

金濟東 著
교육자이며 수필가인 金濟東(42세전) 동문의 제3수필집 「牛眠山の正氣를 마시며」가 나왔다.
수필집 「牛眠山...」에는 金宗泰의 수필 「교직의 매력」 「졸업생에게 교향」을 비롯 미국, 유럽, 동남아 기행문, 저자가 사십여년 몸담은 교육인선에서 느낀 교육雜感들이 특유의 장중한 필치로 실려져 있다. <교육문화출판사刊>

「죽음의 사색」

鄭柄朝의 著
모교교수인 鄭柄朝(71인월) 동문을 비롯, 金烈奎(서강대교수), 李時炯(고려병원 신경정신과장)씨등이 독특한 시각으로 다룬 「죽음」의 문제를 엮은 책이다. <서당刊>

「그리운 집」

朴燦 著
시인 朴燦(72월화) 동문의 두 번째시집 「그리운 집」이 나왔다.
이 책은 이야기, 사설調 등의 형식속에 현실을 드러내고 아픔을 지직한 「수도꼭이 이야기」 「탄시調」 등의 연작시를 포함, 朴

동문의詩 60여편이 실려있다. <동지刊>

「슬픈 어릿광대」

崔淳烈 著
모교 국교과 교수인 詩人 崔淳烈(72국문) 동문의 두번째시집 「슬픈 어릿광대」가 나왔다. 이 시집은 1부 아벌일기, 2부 사전찾기, 3부 자화상등 58편의 시를 실고 있으며, 崔淳烈은 작가의 말에서 「말은 내게 항상 절망이었다. 따라서 말은 통해 판독되는 나의 세계는 항상 절망일수 밖에 없다.」 경의의 말을 찾으며 부끄러운 결심으로 타락한 나의 시문과 언어를 담담하게 던진다」고 쓰고 있다.
한편 75년 「월간文學」을 통해 등단한 崔淳烈은 81년 첫시집 「어둠을 빛이라 불러다오」를 펴내바 있다. <동지刊>

「원시 韓·日語의 연구」

辛容泰 著
모교 일본과에 재직중인 辛容泰교수의 「원시 韓·日語의 연구」가 나왔다.
辛容泰는 이책에서 한국어와 일본어가 어느 언어와 同系이며 그기원은 어디에있는지를알렸는데 지금까지의 알타이語系와는달리 발해만주변에 산재했던 古「아시아」족 언어와 밀접한 관련이있다는게제자의 결론이다. <동국대 출판부刊>

“서로 돕는 코끼리 가족의 傳統”

신입생격려 잇따라

○...어려운 입시관문을 뚫고 새東國가족이 된 모교신입생들에게 새배들의 따뜻한 보살핌이 잇따르고 있다. 보는이들을 호뜻하게 하고 있다.

지난 경주캠퍼스 입학식때 경북 대구기부에서 신입생에 장학금을 전달했는가하면 충남 대전지부는 지역출신 신입생들을 위해 환영회를 배풀고 기념품을 전달했다는 것.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돕고 격려하는 코끼리가족의 이러한 좋은 전통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學問발전 계기 마련

○...지난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私學명문으로 재도약하려는 모교는 올해 학문의질적향상을 위한 큰계기를 마련했다고.



내용인즉 세계의 유수한대학들이 시행해온 「교수연구년제」가 새학기부터 실시되고 국내최초로 「직원위탁교육제」를 도입했다는 것.

“후배에 모범보이는卒業式 되어야”

명심삼부한 종합대학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기위한 모교의 이러한 노력이 언젠가는 결실을 보리라는것이 東國인 모두의 衆望.

눈살 찌프린 졸업식

○...88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열린 체육관인.
진행되는 학위수여식과는별도로 벌어진 작은 해프닝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프리게 했네...
이유인즉 몇몇 졸업생이 열중에서 사진을 찍는 것까지도 이해를 하겠는데 환호를 지르기도 식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 퇴장하는 등문도 있었다.

혹후배들이 보고 배우지 않을까 본동동동수 심히 걱정스럽습나다오.

대우자동차 (株)

89년신형 정통고급승용차 탄생

입페리언 (3,000cc) 계리개시
로얄시리즈 (로얄프린스·뉴크)
월드카르망 (GSE, 올미라·GTE, 레이스)

TEL 553-4712
487-7539 (야간) 판매과장: 崔錫石 (74인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832-3 영신빌딩 3층

全國 林野·상가·빌딩 상담 및 안내

公認仲介士 正忠 鄭宗詰 (86경원)

公認仲介士 鄭宗詰 (86경원)

- 全國不動産仲介協會 理事
- 城東區 公認仲介士 會長

전화: (A) 234-4777, 253-9321 (F) 233-5799
서울 성동구 옥수동 243-35 (극동아파트 경문앞)

■ 西独 刀式 純正品
연료節減
엔진출력증가/수명연장
■ 전문차량
현대·대우 全車種

BOSCH SUPER
Cu-Electrode
Thermo resistant

수입원: 洋陽商事 (대표: 沈載錄·65경원)
TEL: (02) 213-1392/3107 아파트서비스 244

信一金屬센터 (株)

활동판·동판·활동파이프
동판지붕재·비철금속

대표이사 金鍾葉 (84경원)

본사: 서울 동대문구 율동동 255-58
☎ 924-6662, 924-6363

世進家具工藝店

TEL: 736-7887, 2311

- 가정용 가구 代表 金文煥 (64 정의)
- 사무용 가구
- 혼례용 가구

서울 종로구 교남동 61-2 (서대문-독립문 중간)

생일이면 떠오르는...

新羅명과

“실속있고 품위있는 선물을 원하십니까?”

소비자 상담실 863-4040

대표이사 홍평우 (70경원)

洪性裕 人生劇場

將軍의 아들

* 전6권 5권째!
출판170일만에 250,000부 돌파!



“ 무장독립군으로
일본군을 대파한
백야 김좌진 장군.
그 빛나는 아버지의
위업에 도전하는
주목황제 金斗漢의
끝없는 투쟁의 기록! ”

朝鮮日報 연재소설.
홍성유 인생극장 《將軍의 아들》!
폭발적인 화제 속에 전6권 5권!

홍성유 인생극장 《장군의 아들》은 우리시대의 신화적 인물 金斗漢을 주인공으로 흥미진진하게 펼쳐나가는 사회소설이다. 암울한 현실에 대한 분노와 절망감으로 시종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는 이 소설은 박진감 넘치는 사건 전개, 걸작의 입담, 생생한 인물 묘사를 통해 소설의 참재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金佐鎭 장군의 아들 金斗漢은 임꺽정의 배정과 돈키호테의 진지함, 대부의 근성으로 배앗긴 땅에서 주목계의 황제로 등극, 日帝의 무리들을 한손에 쥐고 뒤흔들며 민족혼을 불태웠던 情義 넘치는 巨漢으로 필박받는 자의 보호자로, 드디어는 政界의 거물로 격동의 한국 근대사에 우뚝섰던 우리 시대 가장 늠름한 대장부이며 大自由人이었다.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作家가 아낌없이 써낸 이 작품 속의 특이한 인물들은 기상천외한 행위를 연출하면서 우리를 기막힌 인생무대로 초대한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드라마틱한 사건들은 우리가 걸어온 근대정치, 사회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일깨우고 있다.

日帝의 무리들을 한 주먹에 쥐고 뒤흔들었던 격동의 시대 풍운아들의 극적인 삶과 죽음! 울분 속의 기행과 폭력, 뜨거운 애정과 의리! 한국 근대사의 생생한 모습 《將軍의 아들》!

野史 에도 正史에도 기록되지 않은 순한 사람들이 이땅을 강탈한 일본 야쿠자 그 거리를 배회하는 거랑뱅이, 접대부들, 민족수난의 암흑기에 상처받은 자들과 함께 하며 자유와 정의의 편에서 서서 눈부시게 활약했던 金斗漢이 비인간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던지는 긴 감동의 파문!

* 전6권 / 국판 · 각권 300면내외 / 4권 2,300원 * 날것판매 * 서점에 있습니다.

NORTHWEST



미국여행 —
**만족스러운 여행을
 약속드립니다.**

노스웨스트에서는 더 많은 미국도시로
 모셔드림은 물론 최소 미화 229불로
 북미노선을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먼저 노스웨스트의 USA 패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 가시고
 싶은곳, 계획했던 여행을 시작하십시오.

더 많은 미국도시를 만족스럽게
 여행하시려면 노스웨스트나 여행사로
 전화만 주십시오. 그리고 곧바로 여장을
 꾸미시면 됩니다.

USA PASSES

LOOK TO US  NORTHWEST AIRLINES